



김종건의 아날로그 스포츠 | 배드민턴은 어떻게 인도네시아 국민스포츠가 됐나

배드민턴 스타 수입, 직장인 연봉 수십배... 수산티도 갑부

(인도네시아 배드민턴 영웅)

그 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다. 흔히 국민스포츠라고 부른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 게임에서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배드민턴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놀랍다. 새벽 6시에 티켓을 사려고 장사진을 치고 있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압표가 무려 100만원이라는 소리마저 들린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유난히 배드민턴을 좋아한다. 현장에 가보면 그 열기를 실감한다. 이번 대회 개최식에서 성화 점화자로 배드민턴 스타 수지 수산티가 선정된 것만 봐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배드민턴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수산티는 현역시절 대한민국의 방수현과 항상 세계 정상에서 겨루던 선수였다. 왜 배드민턴은 동남아시아에서 큰 사랑을 받을까.



수지 수산티



배드민턴은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유독 인기가 높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 게임을 개최한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식민시대부터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였고,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엄청난 부를 거머쥔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벌어진 남자단체전 결승에선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게임스코어 1-3으로 석패해 은메달을 따냈다. 단체전 결승 단식에 출전한 인도네시아의 앤서니 시나수카가 중국 선수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다. 자카르타 | 신화뉴스

● 배드민턴의 기원은 인도의 놀이, 그래서 더 친숙하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배드민턴을 예전부터 좋아했다.

사실 배드민턴의 기원은 영국이 아니다. 고대 인도에서 성행했던 푸나라는 놀이가 바탕이다. 이를 식민지 건설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던 영국의 장교가 1800년대 중반 본국에 전파하면서 배드민턴이 탄생했다. 수많은 식민지를 건설했던 영국은 배드민턴을 동남아시아에 역수입했다. 현지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인도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놀이 배드민턴은 전혀 생소하지 않았다. 푸나와 비슷한 놀이는 거부감을 주지 않고 쉽게 정착했다.

배드민턴의 특성상 엄청난 육체적 능력이 나 신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체격이 작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순발력과 지구력이 필요한

고대 인도의 놀이 푸나라서 기원 친숙 체계 작은 동남아 사람들에게 적합 스포츠 유망주들 돈·명예 좇아 입문

중국은 배드민턴·탁구 전략적 육성 나라의 환경도 국민스포츠 탄생 요인 세리키즈 등 슈퍼스타 효과도 한 몫

종목의 특성은 배드민턴의 인기를 높여놓았고, 많은 운동 유망주들이 돈과 명예를 위해 배드민턴에 뛰어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동남아시아를 오래 지배했던 유럽 열강과 일본은 동남아시아 현지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독립의식을 키우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 때 의도적으로 운동장을 두지 않았다. 배드민턴은 넓은 운동장이 필요하지 않았다. 좁은 공간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었다.

● 스포츠강국을 만드는 중주국효과·선점효과·후광효과

우리가 태권도를 잘하고 일본이 유도의 강국인 이유는 같다. 농구와 배구는 미국이

세계 정상이고 조정은 영국, 사이클은 프랑스가 강국인 이유도 마찬가지다. 중주국이 주는 선점효과 덕분이다. 다른 나라보다 먼저 그 스포츠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다.

하지만 중주국이 그 스포츠를 잘하거나 반드시 그 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으로 특정종목을 국가스포츠로 키울 수도 있다. 중국은 탁구와 배드민턴의 강국이다. 엄청난 인적자산을 바탕으로 배드민턴과 탁구에 국가적 역량을 투자한 결과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까지 앞서나갔다.

이런 투자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후광효과다.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되는 슈퍼스타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 나라의 특정 스포츠 인기를 높인다. 우리 여자골프가 세계정상급에 오른 것은 박세리 덕분이다. 수많은 '세리 키즈'는 롤 모델을 따라서 골프에 뛰어 들었다. 선수육성 시스템과 인기, 돈이 이들을 뒷받침해주면서 한국의 여자골프는 세계정상급으로 급성장했다.

● 스포츠는 돈과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인도네시아에서 배드민턴 스타들은 엄청난 돈을 번다. 쉽게 벌여지는 오픈대회를 통해 직장인의 연봉 수십 배를 단숨에 만들 수 있다. 수지 수산티는 배드민턴 덕분에 인도네시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다. 축구가 수많은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신분상승의 기회를 줬듯, 배드민턴은 동남아시아 스포츠 유망주에게 희망이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배드민턴 등록선수는 10만 명이다. 그 넓은 저변에서 좋은 선수가 나온다.

자메이카가 세계적 육상강국이 된 이유도 유전적으로 좋은 DNA를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달리기를 잘해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돈과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꿈이 유망주들을 유혹하기 때문이다.

날씨가 흐린 잉글랜드의 축구는 킥앤드러시 전술을 좋아하고 초원이 많은 남미에서 패스 위주의 축구가 발전하는 것처럼 스포츠는 그 나라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강과 호수가 많은 헝가리에서 좋은 카누선수 수가 나오고, 바닷가를 따라 도시가 발달한 호주에서 수영강국이 된 것은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카누와 수영이 현지인들에게 일상생활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운하가 많은 네덜란드는 겨울에 스케이트를 이용해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환경이 좋은 빙상 선수를 만들어냈다.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권 국가들이 체조를 잘하는 이유도 추운 겨울이 긴 자연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아이스하키, 스키 등도 마찬가지다. 북반구의 나라들이 동계스포츠의 강국이 된 것은 스포츠와 환경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

marco@donga.com

금맥 끊긴 수영...조오련→최윤희→박태환→?

역대 8명 선수 AG 금메달 21개 합작 24일 김서영 혼영 200m 유일한 희망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 게임에서 한국수영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2회 연속 '노 골드'의 위기다. 이제 24일 여자 개인혼영 200m에 출전하는 김서영(24·경북도청)이 유일한 희망이다. 여자접영의 강자로 기대를 모았던 안세현(23·SK텔레콤)은 주 종목 200m에서는 4위에 그치고, 100m에서만 동메달을 따냈다. 육상과 더불어 메달밭인 수영에서의 부진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

만, 몇몇 불세출의 스타들이 일군 과거의 영광에 비추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국수영은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8명의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 그들이 합작한 금메달은 모두 21개다. 그 가운데서도 '아시아의 물개'로 각광받은 고 조오련(1952~2009년), '아시아의 인어'로 사랑받은 최윤희(51), 올림픽까지 제패한 '마린보이' 박태환(29·인천시청)은 단연 돋보인다.

한국수영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처음 안긴 조오련은 1970년 방콕대회와 1974년 테헤란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400·1500m를 2연패했다. 한국기록만 50차례나 경신한 그

연도	개최지	선수	종목
1970	방콕	조오련	남 자유형 400·1500m
1974	테헤란	조오련	남 자유형 400·1500m
1982	뉴델리	최윤희	여 배영 100·200m, 개인혼영 200m
1986	서울	최윤희	여 배영 100·200m
1990	베이징	지상준	남 배영 200m
1994	히로시마	지상준	남 배영 200m
		방승훈	남 자유형 400m
1998	방콕	조희연	여 접영 200m
2002	부산	김민석	남 자유형 50m
2006	도하	박태환	남 자유형 200·400·1500m
2010	광저우	박태환	남 자유형 100·200·400m
		정다래	여 평영 200m

는 은퇴 후 1980년 대한해협, 1982년 도버해협을 수영으로 건넌 데 이어 2005년에는 울

릉도~독도를 횡단했다. 한국수영의 오늘을 낳은 원조 영웅이다.

1980년대 최윤희는 지금의 '피겨여왕' 김연아에 못지않은 국민적 인기를 누리던 여자 스포츠스타다. 19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여자 배영 100·200m, 개인혼영 200m),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배영 100·200m)에서 모두 5차례 시상대 맨 위에 섰다. 한국여자선수로는 최초의 아시안게임 3관왕이었다.

박태환은 경기고에 재학 중이던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자유형 200·400·1500m를 석권하며 2년 뒤 올림픽 금메달의 발판을 다졌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자유형 400m 금메달, 200m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선

자유형 100·200·400m 3관왕에 등극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당초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으나 대회 개막에 앞서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는 바람에 모두 박탈당했다.

이밖에도 1990년 베이징대회와 1994년 히로시마대회에선 지상준(45)이 남자 배영 200m를 2연패했고, 방승훈(히로시마·남자 자유형 400m)~조희연(1998년 방콕·여자 접영 200m)~김민석(2002년 부산·남자 자유형 50m)~정다래(광저우·여자 평영 200m)도 한국수영의 금맥을 이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얻지 못한다면 한국수영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2회 연속 노골드의 수모를 당하게 된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내가 왜 땀겨?

대만 선수단 총 연봉 <양현종>



양현종

● 대만매체, 양현종 몸값 : 우리의 마찬가지로 야구 금메달을 노리는 대만. 대만매체들은 연일 한국 대표팀 전력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얘기에는 역시 돈이 빠질 수 없다. 대만의 한 매체는 "한국 선수단의 총 연봉이 133억 2000만원으로 대만 돈으로

치면 3.6억 달러"라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선수단 중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인 양현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양현종의 연봉이 대만 선수 전체의 2배가 넘는다면 호들갑. 양현종의 연봉은 23억원이다. 그리고 보니 우리도 예전에 월드컵 나갈 때마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같다. 그 와중에 누가 한마디. "우리 대표팀 총 연봉이 추신수 한 명보다 적는데..."

베트남 선수들이 날아다니는 이유

● 박항서, 선수 발마사지 : '박항서 매직'을 쓰고 있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스킨십 리더십이 화제다. 벤치에서는



박항서

마사지 기계를 쥐고 선수의 발을 마사지하고 있는 박항서 감독. 하늘같은 감독님에게 마사지를 받은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뛰고 있다.

삭발의 진짜 이유?



이관 삭발

● 3X3 이관팀, 전원 삭발 : 이관에서도 삭발은 굳은 의지와 각오를 드러내는 행위인가 보다. 아시안게임 3X3 종목에 나선 이관 남자팀 선수단 전원이 머리를 뽕뽕 밀고 경기에 나섰다. 예상대로 이관 대표팀은 온전히 경기에 집중하고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전원 삭발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삭발 덕분이었을까. 이관팀은 2연승을 거뒀다. 이관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금메달 획득시 군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나라다. 어차피 깎을 머리, 좀 일찍 깎은

걸지도.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 내 이름은 아시안게임 : 18일에 인도네시아 팔렘방에서 태어난 여자 아기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아의 이름은 '아비다아시안게임(Abidah Asian Game)'. 평소 열렬한 스포츠파이던 부모는 자국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아시안게임 개막을 몇 시간 앞두고 태어난 딸에게 '아시안게임'이란 뜻 깊은 이름을 붙여줬다고. 아시안게임이라 다행이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World Championship in Athletics)였으면 어쩔 뻔.